



10월의 기도

1. 풍요로운 계절에 좋은 공기와 맑은 하늘과 수확할 수 있는 절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결실을 전도로 승화할 수 있는 계절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 10월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신만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살피며 중보하며 사랑을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전하는 이나 받아들이는 모두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감격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3. 주님의 말씀이 저희 입술에서 나오게 하시고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와 함께하여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4. 세상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모두가 구원을 얻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별칭 및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예금주 : 디시이엠

계좌번호 181-22-02127-7 혹은

256-890020-00804 (하나은행)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두 종류의 사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11)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이 여자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사람들은 손에 들고 있던 돌맹이를 버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자리를 떴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주위를 둘러보시니 그곳에는 간음한 여인만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없느냐?”라고 묻자 여인은 “주여, 한 사람도 없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여인의 영혼 속에 들어왔고, 이로 말미암아 여인은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자와 용서하지 않는 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하늘나라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마 21:31)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故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 사역의 발자취와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되돌아보는 DCEM 2008년 해외성회

〈 2008 미국 교회성장 컨퍼런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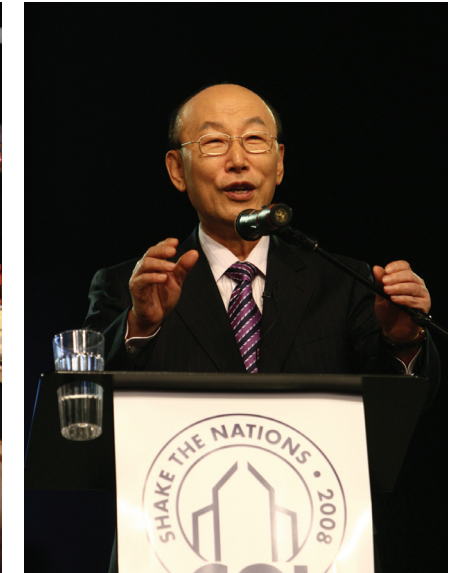
조용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을 듣기 위해 미주지역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2008 교회성장 컨퍼런스’를 회고해 보고자 한다.

DCEM과 베다니월드플레이어센터가 주관하고 국제교회성장연구원의 주최로 열린 본 성회는 2008년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루이지애나 배턴루지(Baton Rouge)에 위치한 베다니월드플레이어센터에서 세계 선교와 교회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성대하게 개최됐다. ‘교회성장 컨퍼런스’는 ‘모든 민족을 뒤흔들라(Shake the Nations)’라는 주제로 14개국의 교회 목회자와 신학생, 장로, 선교사 등 총 4천여 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미주 지역의 교회와 목회자들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조용기 목사는 성회의 하이라이트인 8일과 9일 오전, 두 차례 걸쳐 ‘꿈과 비전(Dreams & Visions)’, ‘표적과 이사(Signs & Wonders)’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2008 교회성장 컨퍼런스’에는 미국을 비롯해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싱가포르, 엘살바도르, 이스라엘, 인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한국, 호주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 신학생, 장로, 찬양인도자, 교회 미디어 및 음향 엔지니어, 아동사역자, 출판 및 문서선교 기획자 등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참석했다.

주 강사로 초청되어 말씀을 전하기 위해 10월 7일 루이지애나 배턴루지에 도착한 조용기 목사는 50여 명의 교회성장 임원들과 30여 명의 (재)순복음선교회 북미총회 목회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성회에 앞서 열린 교회성장 임원모임으로 향했다. 각 국가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나누며 미국 교회들 간의 연합과 미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



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격적인 성회가 시작된 10월 8일과 9일, 베다니월드플레이어센터 노스처치 대성전에서 성도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설교를 시작한 조용기 목사는 “3차원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고 전하면서 “성경은 긍정적인 생각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며 “생각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 방향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3일간의 ‘2008 교회성장 컨퍼런스’를 무사히 마친 조용기 목사는 10월 12일 주일, 교회성장 임원으로서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사역하고 있는 리차드 버널 목사(쥬빌리크리스천센터)의 교회를 방문해 말씀을 전했다.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5~17절)

귀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지으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면 기쁨과 행복의 에덴을 잃고 그 삶에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하게 됩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삶에 저주가 다가왔을 뿐 아니라 영이 죽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면 불안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은 후 인간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이처럼 고통과 탄식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

그러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세기 3장 15절)”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류의 죽음을 철폐하시고 진정한 생명을 복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길을 찾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저마다 진리의 길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길이고,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아무리 빨리 달려서 1등으로 들어와도 정해진 길로 뛰지 않으면 실격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잘못된 길을 달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으므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오직 예수님만 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생명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길을 잃은 존재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면 새로운 신분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죄인의 신분으로 죄인의 옷을 입고 살았으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의 신분으로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주신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3. 오중복음은 에덴의 회복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오중복음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에덴에서 누렸던 의와 거룩함과 성령의 충만, 건강과 치료와 풍요로움,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태복음 7장 9절~11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요한삼서 1장 2절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슴속에 꿈과 믿음을 가지고 살면 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중복음을 삼중축복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입술의 말로 선포하셔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에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용기 목사 소천 5주기]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꽃피우다

절망의 땅에 심은 희망의 복음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설립하고 수많은 제자를 길러낸 조용기 목사는 세계 최대 교회의 부흥을 이끈 목회자이자 가난과 질병, 전쟁의 상처로 얼룩진 한국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희망을 심은 영적 지도자였다.

조용기 목사의 목회와 신학은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으로 요약된다. 오중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중생·성령 충만·신유·축복·재림이라는 다섯 주제로 정리한 순복음 신앙의 뼈대다. 삼중축복은 십자가의 은혜로 인간이 영혼과 환경, 육체의 전인적인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신앙이다.

조용기 목사는 4차원의 영성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이는 현실을 변화시킨다는 믿음 아래 말씀을 따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꿈꾸며 창조적인 믿음의 말을 선포할 것을 강조했다.

기억을 넘어 다시 부흥의 최선봉으로

조용기 목사 소천 5주기를 맞아 그의 삶과 신앙을 되새기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휴먼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신을 저주하던 청년, 시대를 굶는 종이 되다’가 11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했다.

9월 23일에는 순복음동경교회가 조용기 목사의 5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지저스 뮤직 페스티벌’ 성회를 일본 동경에서 개최하여 조용기 목사의 일본 일천만구령운동을 이어간다.

기억은 계승될 때 살아 있는 유산이 된다. 우리는 이제 절망에 빠진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전하고 전세계 제2의 부흥을 건인하며 복음 전파의 최선봉에 서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조용기 목사를 가장 온전히 기억하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 가는 길이다.



Jesus 2026 in Tokyo Music Festival

일시 2026년 9월 23일(수·공휴일)
개장 14:30 / 개연 15:00
1부 15:00 ~ 음악제 / 2부 16:30 ~ 18:00 축복성회

장소 신주쿠문화센터 대홀
〒160-0022 6-14-1 Shinjuku, Shinjuku-ku, Tokyo-to

강사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오오카와쓰구미치 목사
(아마토 길보리산 채물 감독목사)

Jesus Music Festival 2026 in Tokyo 특설 페이지
<https://jesusmusicfestival.jp/kr/>

주관: DCEM | 주최: 순복음일본총회 | 후원: JMF실행위원회, 순복음동경교회



중추가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정마다 가득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명절 되시길 기도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 DCEM -